농림축산식품부 보도 설명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23.(월) 배포 시 배포 2026. 11. 23.(월)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 확산 차단 위해 관계기관 합동 총력 대응, 토마토 출하량 안정적

〈 보도 주요 내용 〉

11월 23일(월) 서울신문에서 「치료제 없는 '토마토 바이러스' 전국확산... 가격파동 우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❶ 정부는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1월 9일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를 공적방제 대상으로 결정하고, 국가 주도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방제를 위해 일제 조사, 확진 농가에 대한 방제 조치, 육묘장 관리 강화, 현장 대응 지침(농가간 출입통제, 작업도구 소독 철저 등)을 마련하고 집중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 정부를 통해 등록된 육묘업체를 대상으로 자체 예방수칙 준수 사항 및 체크리스트 점검, 업체 내 토마토 등 육묘 식재 및 출하 여부를 전수조사(11.19.)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식재된 일부 육묘업체는 농가로 출하하기 전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시료 채취한 후 검사 결과에 따라 출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작물 병해충 위기 대응 단계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농진청의 대책상황실을 확대 운영, 이와 별도로 농식품부-시·도 농정부서가 참여하는 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확산 차단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❷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가 발생되고 있으나, 출하면적 증가와 주산지 작황 호조로 현재까지 출하량은 전·평년 대비 증가하여 수급 영향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11월 출하면적이 전년대비 1.5% 증가한 가운데, 전북 장수·강원 철원 등 주 출하지의 작황이 양호하고 바이러스 피해도 확인되지 않아 11월 현재까지 토마토 수급은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11월 중순 토마토 전체 도매(가락)시장 일 평균 반입량*은 186톤으로 평년대비 27.2%, 전년대비 24.6% 증가하였으며, 도매가격** 역시 전·평년 대비 낮은 시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토마토 일평균 반입량(11.중) : 186톤(평년비 27.2%↑, 전년비 24.6%↑)

** 도매가격(11.중) : 일반토마토 11,437원/5kg(평년비 34.4%↓, 전년비 45.5%↓), 방울토마토 14,382원/3kg(25.4%↓, 42.5%↓)

한편, 바이러스가 집중 발생한 충남(부여·논산 등)과 전북(익산 등)지역은 2~7월 방울토마토 주출하지로 겨울작기 출하 비중이 낮은(4.7% 내외) 산지입니다.

따라서, 현재 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토마토 수급 영향은 크지 않으나, 우리부는 향후 피해 확산에 따른 변동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역학조사와 표본농가조사(KREI) 등을 통해 피해 규모와 생육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수급 영향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책임자	과 장	조민경 (044-201-2251)
		담당자	사무관	봉영근 (044-201-2258)
	식량정책관 식량산업과	책임자	과 장	허동웅 (044-201-1831)
		담당자	사무관	백지현 (044-201-1843)
	농산업혁신정책관 첨단기자재종자과	책임자	과 장	최민지 (044-201-1891)
		담당자	사무관	신민경 (044-201-247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